



야경으로 만나보는 활력의 도시 - 장춘

▲ 저녁 7시 룽원구 서해방립체교차로에 늘어난 차량들, 하루 업무를 마친 직장인들이 따뜻한 집으로 향하고 있다.

어둠이 내리고 화려한 등불
이 밝아오면 장춘은 또 다른 매력을 뽐낸
다.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밤하늘 아래 도시의
윤곽이 유난히 또렷하게 보인다. 시민들로 북적이는 야
시장에서 상인들의 활기찬 웨칭과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어
우러진다. 장춘의 밤은 활력과 낭만, 생활의 정취와 현대감이
융합된 공간이다. 사진을 통해 장춘 야경의 매력을 감상해보
자! / 손맹번 류향휘 기자



▲ 장춘역은 도시 발전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이다. 많은 사람들이 이곳
에서 출발해 새로운 삶을 펼쳐간다.



▲ 역사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인민광장은 장
춘이 겪은 파란만장한 역사를 조용히 보여주고 있다.



▲ 어둠이 깃들면 장춘 마
천활력성(摩天活力城)은
화려한 불빛 향연을 선물한
다. 도시의 랜드마크인 대형
관람차는 반짝반짝 불빛을
뿌리며 우뚝 서있다.

▶ 어둠이 내린 장춘시 위
성광장, 길가의 조명과 중앙
랜드마크가 서로 어우러져
장춘의 화려한 야경을 돋보
이게 한다.



◀ 해질녘, 북호공원의 호수가에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석양
을 감상하는 것은 얼마나 낭만적인 일인가!

▼ 다양한 맛집이 모여있는 계림로 상권은 시민들이
퇴근후 휴식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.

